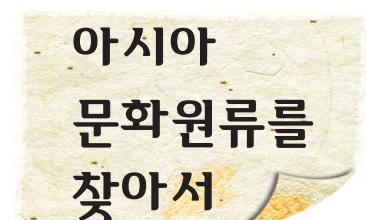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은 유목과 기마민족의 독특한 전설·신화의 배경이 되는 드넓은 초원과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18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티슈켄트 외곽에 있는 양기들 치노즈 마을 평원에서 마을 주민이 양떼와 소를 몰고 가고 있다.
/티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 원석’ 이야기 보물창고를 열다



① 프롤로그

티슈켄트=윤경기 기자

“그의 강철 투구가 덜컹거리네, 코뿔소 가죽으로 만든 방패가 소리를 내는구나. 다이아몬드 검과 청동으로 만든 칼집 장식이 딸그랑 거리고, 등자(발걸이)가 찰랑거리네. 말이 물을 파르르 떨면서 콧김을 뿜어내네.”(우즈베키스탄 영웅 ‘알파미시’(Al-pamysh)의 전투장면).

우즈베키스탄 콘그라트 부족의 영웅 ‘알파미시’가 아랄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드넓은 초원지대에서 숙적과 전곤일적의 승부를 벌이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인물이 주인공인 영웅 서사시 ‘알파미시’가 부족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아시아인의 삶·역사·사랑의 파노라마

亞스토리 로드 대장정 우즈벡서 시작

내용이 얼개로, 기마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투영한 복수, 사랑, 권선징악 등 인간사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덴마크 출신 미래학자 롤프 엔센(Rolf Jensen)은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에서 “앞으로는 꿈과 감성, 이야기를 파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간파했다. 정보화시대에 이어 ‘이야기 지원 전쟁시대’ 즉, ‘콘텐츠 전쟁의 시대’로 돌아온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자’가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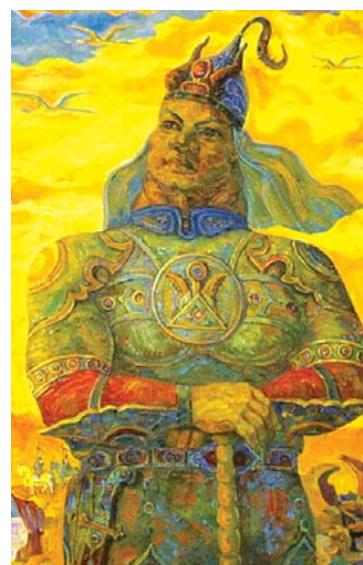
아시아는 ‘21세기의 이야기 보물창고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2곳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전설, 신화, 설화, 민담을 비롯해 건국신화 등 스토리의 광맥이 널려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솝이야기, 탈무드 등을 영화, 문학, 미술 등으로 반복·변주하

면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서양과는 대조적이다.

아시아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각국에서 손꼽은 것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 모두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에 활용될 원자재다.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광주에 세워지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의 보석’을 끌어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2014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흥미진진한 ‘아시아 이야기’를 찾아나선다. 창사 60주년을 맞아 대하기획물로 연재하는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중



우즈베키스탄 국민화가 무バラ 올다 시예브가 그린 ‘알파미시’(Alpamysh)의 초상화.

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스토리 로드(Story road)’ 여정이다. 아시아인의 역사, 삶, 사랑, 문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흥미진진한 여행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penfoot@kwangju.co.kr

☞ 3면으로 계속



합리적인 전기세율로 행복한 우체마을



전기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매우 높으며,

불필요한 전력 소비는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전기절약,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국민 경제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3%로,

OECD 주요국인 일본 0.2%, 독일 0.6%, 미국 0.7%, 영국 △0.1%에 등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 생산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급증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